

# '50억 클럽'...화천대유 "정영학 녹취록 의도적 조작" 부인

### 박수영 "50억 약속 6명 명단 최초 공개"

### 권순일·박영수·곽상도·김수남 등 포함돼

### 김수남·최재경 "사실무근, 법적조치 방침"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50억원을 약속받은 6명' 명단을 공개한 것을 두고 화천대유와 당사자들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화천대유 측은 6일 국회 정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박 의원 발언과 관련해 "화천대유는 이들에게 그와 같은 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 관련 녹취록을 제출한) 정영학은 수 개월 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동업자들과 갈등을 빚어 오던 중, 의도적으로 허위 과장 발언을 유도해 대화를 녹음해 왔고, 정영학 또한 허위 비용을 주장해 사실과 다른 발언들이 일부 녹취된 것에 불

과하다"고 했다.

화천대유 측은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사람들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투자를 하거나 사업에 참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떤 명목이든 금전을 지급하거나 약속할 이유 없다"며 "의도적으로 조작된 녹취록을 근거로, 마치 그 내용이 사실인양 관련자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자금 추적 등을 통해 사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화천대유의 관계자들도 검찰과 경찰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명단에 이름이 포함된 김수

남 전 검찰총장은 이날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와 관련된 발인자와 보도자에 대해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전 검사장인 최재경 변호사는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화천대유에 고문 변호사를 한 일이 없고, 사업에 관여한 일도 없으며, 투자한 일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내게) 거액의 돈을 주겠으며, 준다고 명목 없는 돈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평생 범조인으로 명예를 중시하며 살아왔다. 현재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아무리 국정감사고 면책특권이 있다 해도,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실명을 거론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향후 법적인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곧장 입장을 내고 "저는 화천대유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통보 받은 일이 결코 없다"며 "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일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면책특권을 방패삼아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사실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며칠 전에도 소명한 바와 같이 저는 2016년 12월 특검에 임명되면서 김만배씨와는 연락을 끊었고 (연락을 안하는 상태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책임한 폭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진행된 국회 정부위 국정감사에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과 복수 제보에 의하면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과의 대화에서 50억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온다"며 "녹취록에 '50억 약속 그룹'으로 언급된 분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제가 처음으로 그 분들을 공개한다. 녹취록에 나온 사람들"이라며 "권순일, 박영수, 곽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부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50억원 약속 그룹' 명단을 바라보고 있다.

도, 김수남, 최재경, 홍모 씨"라고 명단을 공개했다.

그는 "또한 50억원은 아니나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로비 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며 "이분들 중에는 이미 (로비자금을) 받은 사람도 있고, 대장동 계

이트가 터져서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급하게 차용증서를 써서 빌렸다고 위장했다가 다시 돌려줬다는 사람도 있고,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있다는 추가 제보가 있다"고 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 이재명 31.1%...윤석열 19.6%·홍준표 14.1%·이낙연 10.1%



왼쪽부터 대선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10%p 이상 격차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케이스탯리서치가 경향신문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일 공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

준 ±3.1%p·응답률은 21.0%)에 따르면 이 지사는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적합한가' 질문에 31.1%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윤 전 총장(19.6%),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14.1%), 이 전 대표(10.1%), 유승민 전 의원(2.6%),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2.0%), 심상정 정당 의원(1.4%), 최재형 전 감사원장

'민주 후보 적합도' 명 38.2%·洛26.9%·朴 4.7%·秋 2.5%

(1.2%), 추미애 전 법무장관(1.1%), 원희룡 전 제주지사(0.9%), 박용진 민주당 의원(0.4%) 등순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38.2%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낙연 전 대표(26.9%), 박 의원(4.7%), 추 전 장관(2.5%) 등순이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지사가 63.6%로 이 전 대표(26.6%)를 두 배 이상 앞섰다. 추 전 장관은 1.9%, 박 의원은 0.6%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홍 의원이 29.8%로 1위를 차지했다. 윤 전 총장(22.4%), 유승민 전 의원(12.6%), 황교안 전 대표(2.5%), 원 전 지사(2.2%), 최 전 원장(1.5%), 하태경 의원(0.9%) 등이 그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전 총장이 50.5%로 1위를 기록했고 홍 의원(32.7%), 유 전 의원(5.0%), 황 전 대표(2.8%), 최 전 원장(2.8%), 원 전 지사(2.1%), 하 의원(0.0%) 등순이었다.

이 지사와 윤 전 총장 양자 가상대결 구도를 보면 이 지사가 43.4%로 윤 전 총장(35.7%)을 오차범위 밖에서 제쳤다. 이 지사는 홍 의원과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43.2% 대 36.3%로 앞섰다. 이 전 대표는 윤 전 총장과 가상대결에서 39.0% 대 35.3%, 홍 의원과는 39.1% 대 37.8%였다.

응답자의 51.0%가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에 투표해야 한다'고 답했다. 40.5%는 '정권연장을 위해 여당 후보에 투표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 시진핑 방한 놓고 野 "굴종외교" vs 장하성 "코로나 영향" 팽팽

6일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미 시진핑(중국국가) 주석이 방한하지 않았겠냐는 게 저희들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날 장 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중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말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기간 두차례 중국을 방문할 동안 시 주석이 한번도 한국에 오지 않은 건 "대중 굴종외교"가 자초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정권 말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정상회담 및 시진핑 답방에 몸부림을 치고 있던 느낌을 받는다. 시진핑 답방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냐"

고 물었다. 장 대사는 "시 주석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방문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베이징에 외교사절을 접견한 사례도 아예 없다"며 "그 정도로 철저한 방역 상황에 놓여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코로나19가 그렇게 겁나는 데 왕 부장은 한국에 올 수 있느냐"고 말했다. 장 대사는 "우리로 말하면 장관급 중 해외방문을 하는 경우는 (있다)"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 주석뿐 아니라 리커창(중국 총리) 등 최고 위층의 해외 방문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